|  |
| --- |
| **WPI Profile 타인평가** |

**Culture**

Culture 성향이 높은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여유롭게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처한 환경과 삶의 경험이 비교적 풍부하며 트렌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향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는 지적, 물질적 자원이 풍부한 편입니다. 자기 취향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그 취향이나 코드가 잘 맞으면 누구와도 잘 어울릴 타입입니다.

자율성을 강조하는 조직에서는 파트너십을 발휘하면서 즐겁게 할 일을 합니다. 일에 어느 정도 몰입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생산성과 효율성, 문제 해결 등이 아니라 자기 즐거움입니다.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세련되게 자신을 잘 노출할 수 있으며, 인생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줄도 압니다. 지적으로 높은 개방성과 성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세대 트렌디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자연스러우며, 한마디로 선진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성향을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김연아, 박태환, 이준익 영화감독 등이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Culture 성향은 “현상유지”를 중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에이전트에게서 가장 주요하게 드러나는 양상이지만, 다른 유형에서도 동일하게 삶의 모습에 드러나기도 합니다.